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8. 19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박진홍, 최민석, 임유현 ·☎ (044) 201-3318, 3321, 4129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서울 주택 공급은 원활하며, '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 3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.

- '18~'22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.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(3.3만호), 5년 평균(3.2만호) 대비 약 32~36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.

<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전망(만호) >

	10년 평 (’08-’17)	5년 평 (’13-’17)	’18	’19 ^e	20 ^e	’21 ^e	’22 ^e	’18-’22 평균	10년 비	5년 비
서울	6.5	7.3	7.8	7.6	6.9	7.1	7.1	7.3	12.6%	△0.4%
(APT)	3.3	3.2	4.4	4.5	4.1	4.3	4.3	4.3	32.1%	35.7%

○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.

-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2분기 감소하였으나,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, 2.2만호로 전년(1.1만호) 대비 2배 이상, 5년평균(1.5만호) 대비 48%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.
- 착공(1.8만호), 준공(2.1만호)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 물량이 약 30~40%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< 상반기 누계 서울 인허가·착공·준공 현황 >

	인허가	착공	준공
’19.6월누계	22.4천 호	17.9천 호	20.6천 호
(5년 평균 비)	48.0% ↑	27.4% ↑	39.8% ↑
(전년 비)	110.8% ↑	24.5% ↓	56.7% ↑

- 아울러, 정부는 '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(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+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)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이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,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(약 5만호)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.4만호(부천대장 등 17곳), 서북부에 6.8만호(고양창릉 등 6곳), 동북부에 8.9만호(남양주 왕숙 등 4곳)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,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, 성남 북정·금토·서현 등 11곳에 6.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권역별 신규 공공주택지구>

권역	서남부	서북부	동북부	동남부
규모	9.4만호(17곳)	6.8만호(6곳)	8.9만호(4곳)	6.8만호(11곳)
지구명	부천대장(2만호) 안산장상(1.3만호) 시흥거모(1.1만호) 등	고양창릉(3.8만호) 인천계양(1.7만호) 인천가정2(0.2만호) 등	남양주왕숙(6.6만호) 남양주진접2(1.3만호) 의정부우정(0.5만호) 등	하남교산(3.2만호) 성남북정 등(1.1만호) 과천(0.7만호) 등

* 용인구성역, 안양인덕원, 안양관양 지구는 지자체에서 추진(1.3만호)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8.18.) >

- ◆ 아파트 인허가 ‘뚝’...4~5년 뒤 공급대란 우려
- 서울 2분기 16% 수준 급감
 - 서울 정비사업 빠른 공급 불가능, 재초환 이어 상한제 ‘공급 족쇄’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